

■ '2020년 제주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했는데

도민들 똥똥하고 술 자주 마시고...

고위험음주율·비만율 전국 최고수준... 흡연율 감소세

제주도민 비만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만율과 음주 습관 등을 조사한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조사는 19세 이상 도민 5000여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고위험음주율은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한 13.4%를 기록했지만 전국에서는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간 주 2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맥주 5캔, 여자는 5잔·맥주 3캔 이상 마신 비율을 말한다.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체중 조절 시도를 많이 하지만, 오히려 비만율은 늘었다. 체중 조절 시도율은 2019년에서 61.7%, 2020년 74.6%로 1년 사이 12.9%포인트 증가해 전국 최상위권이었지만 비만율은 오히려 전년 대

비 2.4%포인트 늘어난 35.0%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비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다행히 건강의 주요척도인 제주도민 흡연율은 4년 연속 감소했다. 흡연율은 2017년 23.1%, 2018년 21.8%, 2019년 20.6%, 2020년 18.8%로 매년 꾸준히 줄고 있다. 또 중등도 건강생활실천율과 걷기 실천율도 전년 대비 각각 0.9%포인트와 1.9%포인트 늘어난 25.6%와 35.1%를 기록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밖에 스트레스 인지율은 25.8

%로 전년대비 2.6%포인트 증가했고, 우울감 경험률은 4.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흡연율, 체중조절시도율, 중등도 건강생활실천율 등은 개선됐으나, 비만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건강 악화지표의 개선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자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제주시 250억 투입해 조성

제주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250억원(국비 70억원, 도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 4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친환경 시설로 건축, 에너지 효율성을 꾀할 방침이다. 강민성기자



제주 떠날 채비하는 저어새 3일 제주시 구좌읍 중달리 해안에서 번식지로 떠날 준비를 하는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 멸종위기종 1급)들이 휴식을 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막개발에 바다거북·흰물떼새 발길 끊어”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보존 모색 토론회’ 모래언덕 과거 대비 80% 이상 훼손... “대책 절실”

“중문해수욕장에 형성된 ‘사구(沙丘·모래언덕)’에는 2007년까지 바다거북 산란이 확인됐다. 하지만 해수욕장이 사시사철, 24시간 개방되다 보니 바다거북이 알을 낳으려 오기 힘들어졌다. 현재 인공증식한 바다거북을 이 곳에서 방류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와 알을 낳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성산일출봉을 육지와 연결시킨 ‘신양 해안사구’는 제주에서 그나마 해안사구가 대규모로 남아 있는 곳이

다. 봄에는 흰물떼새가 여기서 알을 낳는다. 하지만 최근 행정당국이 관광객들을 위해 야자매트를 깔아버렸다. 이로 인해 사구 훼손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물론, 흰물떼새의 서식 상황도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다.”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 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양수남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모래 해변이 해수욕장으로 변신하면서 그 뒤에 있는 해안사구에는 상업시설 혹은 해안도로가 개설됐다. 문제는 그동안 해안사구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장치 없이 무분별한 막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함덕·월정·평대·신양·중문·사계·협재·이호 등 도내 14개 해안사구의 현황을 설명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17년 국립생태원의 ‘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제주는 전국에서도 해안사구가 가장 많이 훼손된 지역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면적대비 무려 82.4%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제주의 해안사구에는 독특한 염생식물 생태계가 형성돼 있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등 독특한 생물들의 서식지”라며 “또 화산지층 위에 해안사구가 형성돼 있고, 이에 따라 희귀한 위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등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국장은 ▷해안사구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중 일정 구역을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 ▷야자매트 철거·우회로 개설 등 행정당국의 긴급조치 ▷해안사구를 개발 대상에서 생태관광 대상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림여중·여수안산중·순천팔마중 공동수업 “제주4·3과 여순10·19 함께 기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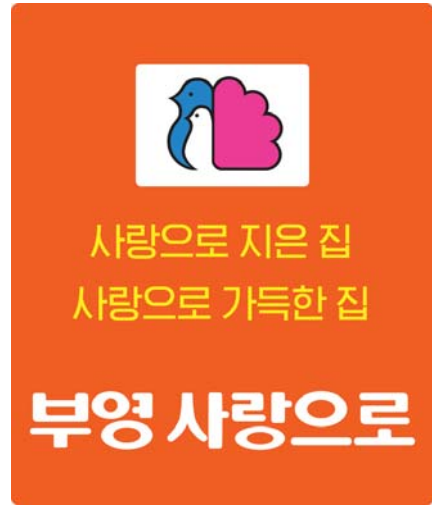
아픈역사 이야기 나누며 알려야 하는 공감대 가져

제주와 전남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제주 4·3’과 ‘여수·순천 10·19(여순 10·19)’의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며 함께 기억하고, 더 많이 알려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 2일 한림여자중학교 도서관에서 제73주년 제주4·3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초청으로 제주를 방문한 여수 안산중, 순천팔마중 학생 8명과 한림여중 학생들이 함께하는 ‘제주 4·3-여순10·19 평화·인권교육’ 공동 수업이 열렸다. >> 사진

주)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수와 순천에서도 이런 교육이 잘 이뤄지길 바랐다. 정운수 학생(여수 안산중)은 “이제 평화공원에 직접 가보니 더 경건해지는 느낌이였다”면서 “역사를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장만근 여수 안산중 교사(사회)는 “학생들이 진지하게 4·3에 대해 아는 것을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수업할 지 고민하게 했던 시간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제주에서 꾸준히 학교별 사회·역사과목을 넘어 미술·국어 등 다양한 연계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공동수업에 이어 전남지역 방문단을 대상으로 강준희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가 4·3의 경험을 생생히 전달했다.

수업은 한림여중 이현주 교사가 맡아 4·3과 여순10·19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고 한림여중 학생들이 미리 제작한 ‘4·3과 여순10·19 가면’ 이야기를 들은 후 소감을 나누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한림여중 학생들은 가면에 4·3과 여순사건의 뿌리가 같음을 하나의 동백나무로, 희생자를 빨간 동백으로, 당시의 아픔을 눈물과 상처로 표현했다. 이를 레이스와 천으로 가려 오랜 세월 드러내지 못했던 유가족의 아픔을, 여러가지 색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 내기도 했다. 수업을 마치고 전아현 학생(순천팔마중)은 “제주에서 4·3교육이 재미있는 활동으로 잘 이뤄지는 것 같다”. 분석형 학생(순천팔마중)은 “4·3관련 다양한 수업을 해서 (제

한편 지난 1일 제주에 온 전남 방문단은 3일 제주북초, 관덕정, 주정공장 등 제주시 지역 4·3유적지를 답사한 후 전남으로 돌아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耽羅國宗廟大祭

檀君 三韓 시대로부터 이조태종조까지 수천년의 脈을 이어온 耽羅國 개국시조 高乙那 聖王을 비롯한 역대왕과 星主님들의 위업을 기리는 耽羅國宗廟大祭를 아래와 같이 봉향합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여인원을 제한하여 祭官중심으로 검소하고 경건하게 奉享하고 있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1년 4월 9일(금) 11:00 / 장소: 탐라원 성지 (제주시 연북로 560)

입재: 2021. 4. 8(목) 17:00 (정기총회 포함)

현 관

◎ 왕 위 전

○ 초 현 관 高正彦

○ 아 현 관 高元讚

○ 종 현 관 高秉秀

◎ 전 사 관 高誠七

◎ 성 주 전

○ 초 현 관 高成贊

○ 아 현 관 高忠民

○ 종 현 관 高承益

고 씨 종 문 회 총 본 부 회 장 高錫根
재) 탐라종묘문화재단 이사장

지방보조금 지원행사
· 보조사업명: 탐라국종묘대제
· 보조사업자: (재)탐라종묘문화재단